

논술

준

대학 가자



논술
핵심 요약

집필진

초암 PlanA 논술팀

이아람
박새진
이순영
김지연
이계룡
김가남
박정혜

STAFF

발행인	김형중
편집인	홍태운
기획 실장	김미경
기획·편집	이유진 우경아 김영주 심현진 염혜련
사업 실장	이대연
영업	최기문 이진홍 이윤혜 김지혜
마케팅 실장	강경조
마케팅	김근경 김라니 임고은 김종규
디자인	김정민 조희정 닷츠 디자인부
제작	박종택 신성철 김경수
출력	CMYK

논술로 대학 가자 논술 핵심 요약 201507 초판 1쇄 제작코드 SA0T02SICP88

펴낸곳 이투스교육(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34(삼성동 113-8)

Tel. 1599-3225 등록번호 제2007-000035호

ISBN 979-11-6831-208-4 [53710]



초암 PlanA 논술팀

“초암 PlanA 논술팀”은 2001년 <콧콧 수시전형 길잡이> 시리즈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 <단단하게 당당하게> 시리즈, <대학별고사 논술구술 시사> 시리즈 등 다수의 시리즈 교재물과 <논술 기초>, <논술, 은유와 상징의 날개를 달다 : 논술백과사전>, <초암논술실전 : 기본편> 등 다수의 교재를 집필해 왔습니다. 또한 한경 논술모의고사, 초암-한겨레 논술모의고사, 호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등 수많은 논술모의고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저자 프로필



이아평

현 대치 새움학원 대치 비전학원 출강
전 대치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메가스터디(온라인/재동)
전 이투스온라인
전 강남대성학원(재동)



박세진

현 목동 초암 PlanA 논술학원 대표강사
전 목동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이투스온라인
전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이계룡

현 대치 새움학원 인문논술팀장
전 대치 초암논술 고 1, 2 대표강사
전 이투스온라인
전 초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이순영

현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대표강사
전 목동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메가스터디 이투스온라인
전 한경 성공생글 논술경시대회 책임출제위원



김가남

현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전임강사
전 중계 초암논술 고 1, 2 대표강사
전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김자진

현 초암 PlanA 논술팀장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전임강사
전 대치 초암 인문논술팀장, 중계 초암
전 이투스온라인
전 초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박정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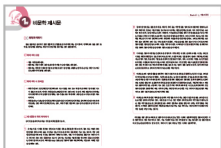
현 목동 초암 PlanA 논술 중등동부 전임강사
전 대치 초암 입산 초암 중등부 부원장
전 한경 성공생글 논술경시대회 책임출제위원
독서토론 교재 <생각의 날개를 달자> 저자

Structure

구성과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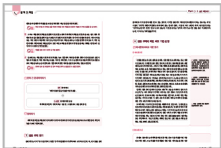
학생들의 실제 GOOD vs. BAD 답안으로 실전 합격의 원리를 배운다!

논술로 대학 가자! 논술 핵심 요약은 사고력과 논증력을 키워 주는 논술 필독서로서, 제시문 특성별 읽기 전략과 논제에 따른 쓰기 전략을 풍부한 예제와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과 실제 GOOD vs. BAD 답안 대조로 익힘으로써 대입 논술의 모든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논술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전략적 해법

논술의 첫걸음인 제시문 읽기부터 논제에 따라 쓰기가 지 단계별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학습 전략과 원리를 직접 예시문에 적용해 볼으로써 논술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첨삭과 제시문 구조 도식화로 풍부한 이해 도모

논술 제시문에 대한 풍부한 첨삭과 제시문 구조도 등 친절한 설명을 더하여, 논술에 대비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다양한 풀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예제와 예제 해결을 통한 원리 적용 훈련

실제 주요 대학의 수시논술 기출문제를 변형한 예제를 제시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학습법을 통한 전략적 해법으로 그 예제를 해결함으로써 제대로 된 실전 적용 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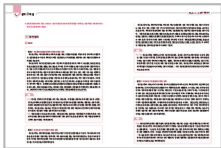
교재 활용법

1. Part 1을 통해 제시문 특성별 읽기 전략을 습득한다.
2. Part 2를 통해 논제 유형별 쓰기 전략을 익힌다.
3. 기술문제를 변형한 예제와 예제 해결을 통해 논제 해결 방향을 이해한다.
4. 각 Part별 II, 적용하기에 제시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답안을 작성해 본다.
5. 학생들의 실제 GOOD vs. BAD 답안과 비교해 봄으로써 실천 합격의 원리를 반복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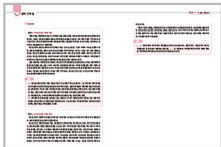
문제 해결력 습득

제시문에 대한 원리적 분석과 이에 대한 논제에 걸맞은 해결법을 제시함으로써 실천 감각을 키워도록 구성했습니다.



BAD 답안으로 실수 줄이기

학생들이 작성한 실제 부족 답안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찬절한 청사와 강평으로 논술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GOOD 답안으로 합격의 원리 체득

실제 학생들의 우수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합격의 기준에 합당한 답안 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책

머리에

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보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의 선원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자신의 나아갈 바를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면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문법을 정리하고 싶거나 어휘력을 늘리고 싶거나 독해를 잘하고 싶다는 등의 답을 한다. 국어, 수학 같은 과목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알더라도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공부 초점과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논술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만큼 논술은 학생들에게 매우 낯선 과목임이 틀림없다.

이는 물론 학생들이 논술을 공부해 볼 기회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논술의 표준적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 풍문으로라도 논술 공부법을 들어본 적이 없고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논술 공부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고전적 레퍼토리'인 신문 사설 읽기를 꺼내들거나, 추천도서 읽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개념어 사전이나 시사 주간지로 배경지식 쌓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수업이나 토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모두가 좋은 공부이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연습들이 실제 논술문 작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준비 운동을 생각하고 바로 대입 실전 논술 문제 풀이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있다. 이것 역시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논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글짓기 대회를 제외하고는 글 쓴 경험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대입 논술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교과는 바로 이러한 논술 커리큘럼의 공백을 해소하여, 논술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요컨대 막연한 배경지식 공부보다는 실전 논술문 작성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실전 문제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지는 않는 그런 학습서를 만들어 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교과는 논술문 작성의 토대가 되는 제시문 독해법에서 시작하여, 실전 논술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독해법(읽기와 요약)에 대해서는 'Part 1'에서 다루고 있으며, 논술의 네 가지 대표 유형 풀이법에 대해서는 'Part 2'에서 다룬다.

각 'Part'는 'Ⅰ. 기초 다지기'와 'Ⅱ. 실전 적용하기'로 나뉜다. 'Ⅰ. 기초 다지기'에서는 풀이의 원리를 배우고, 'Ⅱ. 실전 적용하기'에서는 그 원리를 실제 문제들에 적용하면서 반복 연습을 한다. 말하자면, 'Ⅰ. 기초 다지기'에서는 배우고(學) 'Ⅱ. 실전 적용하기'에서는 익히는(習)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책의 특징점 및 그와 관련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 구성에서도 눈치챌겠지만, 이 책은 문제 해결의 '원리'를 매우 강조한다.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를 안다면 당연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더욱이 원리를 활용한다면 주먹구구식 문제 풀이를 지양하고 체계와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이 책에서는 원리를 제시하고 철저하게 그 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 간다. 학생들도 이 점에 유념하여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데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만약 원리 이해가 쉽지 않다면 원리 설명에 이어지는 예제를 풀어 보며 원리를 이해해 가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 된다. 원리는 실제 문제를 풀어 볼 때 더 현실감 있게 이해될 수 있다.

혹시라도 일반화된 원리에 따라 논술문을 작성하면 독창성을 잃어버리거나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기우이다. 원리는 문제 해결의 기본 설계도일 뿐 세부 사항 모두를 규정하지는 못하므로 창의성과는 별 상관이 없다. 마치 모든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엔진과 기어, 핸들이 필요하지만 작동 방식과 디자인이 천차만별인 것과 같다. 원리에 입각하더라도 학생마다 답안이 다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점은 실제 학생 답안 분석을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기 쉽다는 점이다. 이 교재의 각 Part별 'I. 기초 다지기'에서는 문제 모두에 예시 답안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II. 실전 적용하기'에서는 실제 학생들의 '부족 답안(BAD)'과 '우수 답안'(GOOD)'에 대한 선생님들의 분석과 첨삭을 제시하였다. 이 책의 핵심 부분에서만은 학생 답안에 대한 분석과 첨삭을 수록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예시 답안이 실제 학생들에게는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실제 시험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경쟁하며, 시간의 압박 속에서 답안을 작성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봐야지만 현실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때문에 교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만듦은 학생 답안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부족 답안을 제시한 데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이 답안들은 많은 학생들이 범하기 쉬운 전형적인 실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첨삭 내용을 참고하여 이 답안을 분석하면 유사한 실수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점은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혼자 공부하기에도 적절하다는 것이다. 논술은 정답 맞히기라기보다,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합리적 사고 과정을 서술하는 데 핵심이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생각의 과정을 꼼꼼히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을 강의가 아니라 문자로 구현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자주 주도적으로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논술을 처음 해 보거나 논술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전 단계까지 실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논술의 기초 중 기초라 할 수 있는 제시문 독해 방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쉬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실전 문제 풀이까지 점진적으로 학습해 갈 수 있다. 기초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이 책 전체를 성실히 공부하고 난 후에는 실제 대입 논술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집필에는 다년간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며 논술을 가르친 현직 논술 선생님들이 참여하였다. 이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중반부터 '초암논술아카데미'라는 오티리 안에 모여 학교와 학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수많은 입시 현장에서 합격생들을 길러 낸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합격하는 답안 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자부한다. 지금은 'PlanA 논술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나은 논술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인문 논술>과 더불어, 이 교재도 그런 모색과 혁신의 일환이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논술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체계적·점진적으로 논술을 준비하여 합격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원한다.





C Contents

차례

Part 1 읽기와 요약 전략

I. 기초 다지기

1장 비문학 제시문	14
2장 문학 제시문	28

II. 실전 적용하기

1장 비문학 제시문	54
2장 문학 제시문	74

Part 2

유형 이해와 쓰기 전략

I. 기초 다지기

1장 개념의 적용 1 [제시문형]	88
2장 개념의 적용 2 [자료형]	100
3장 비교 분석	112
4장 비판	124

II. 실전 적용하기

1장 개념의 적용 1 [제시문형]	144
2장 개념의 적용 2 [자료형]	194
3장 비교 분석	234
4장 비판	290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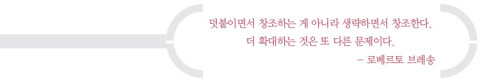
읽기와 요약 전략

I. 기초 다지기

- ①장 비문학 제시문
- ②장 문학 제시문

II. 실전 적용하기

- ①장 비문학 제시문
- ②장 문학 제시문



멋붙이면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생략하면서 창조한다.
더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 로베르트 브레송

I 기초 다지기

모름지기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일일이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수고를 해야 한다. 논술도 마찬가지이다.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논술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논술의 첫 단추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침없는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우선 잘 듣고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듣는 것과 읽는 것 모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범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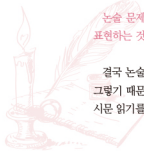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나의 생각으로’, 모든 논술 문제의 해법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흔히 논술 제시문은 어렵고 재미없는 글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논술에 출제되는 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어휘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어가 많은 글은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의 모든 논술 문제는 앞으로 이 교재에서 접하게 될 수준의 글을 읽어 낼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조금만 열의를 갖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잡힐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에 수록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전 문제에 대한 연습을 차근차근 따르다 보면, 밥을 맛있게 먹듯이 여러 글들을 푹 푹 씹어서 읽게 되고 어느덧 논술 문제에 등장하는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낄 때가 올 것이다.

제시문을 읽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머릿속에 형상화되면, 이제 그것을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논술 문제는 문제와 제시문을 주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펼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논술 문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논술 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전략 습득이 논술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문 읽기법을 연습해 보자.





1장

비문학 제시문

[1] 화제 파악하기

글을 꼼꼼하게 분석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대략적으로 글을 읽어 본 다음, 글 전체를 포괄하는 화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출발점이다.

1 화제 파악 요령

- 빈출 어휘를 찾아본다.
- 반복되는 동일 어휘가 없다면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군을 찾아본다.
- 반복되는 뚜렷한 어휘도 단어군도 없다면 내용상 글 전체를 포괄하는 단락 혹은 핵심 주장이 드러나 있는 단락의 핵심어를 찾아본다.

2 화제 파악 시 유의점

- 화제가 반드시 글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꼭 글의 첫머리나 끝 부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화제를 찾는 확실한 공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화제는 자주 등장하거나 핵심 단락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제 파악 요령'은 참고 사항으로 알아 두도록 하자.
- 화제를 찾는 이유는 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대강의 전개 방향을 감지하기 위해서이므로 화제를 찾는 것에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화제가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다.

3 예시문에서 화제 파악하기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예시문의 화제를 찾아보자.

- 1 우리는 지금,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여가 생활 등은 물론이고 사상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도 모두 상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방식마저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리프킨(Jeremy Rifkin)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2) 접속이란 인터넷은 물론 전자 제품, 자동차, 주택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포괄적 추세이다. 접속은 이들 상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상대 개념은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존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고객이 평생토록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고 서비스나 다른 영역의 접속에 관한 권리를 팔면서 고객의 시간을 장악해 나간다. 우리의 삶이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은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다 서비스화될 수 있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매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의 모든 인간 활동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계에서는 감정의 연대, 믿음 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입회, 등록, 요금 등에 기반을 둔 계약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순전한 상업적 관계로 얽혀 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배려와 애정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 4) 리프킨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삶의 기저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늘 상업에 선행했다.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문화가 상업화를 위한 재료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문화 자본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문화적 다양성을 살살이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결국 인간의 문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 5) 리프킨은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 나가는 것만이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천 년을 이어 온 인간 체험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시키는 일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예시문을 대강 훑어보더라도 첫 단락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품화'에 관한 필자의 견해가 이후 단락에서도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상품화'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글 전체에 반복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화제는 '현대 사회의 상품화'이다.

[2] 단락별 주제문 파악하기

글의 단락마다 주제문이 있기 마련이다. 화제를 파악했다면 각 단락의 주제문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주제문은 단락의 처음이나 끝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주제문을 찾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아 두자.

- 단락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 달리 표현하는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를 주제문으로 삼는다.
- 중심 내용을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대조를 위해 제시된 내용은 주제문이 될 수 없다.
- 사례 자체가 중요한 경우(☐ 사례의 내용 자체가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 등)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례는 주제문이 될 수 없다. 즉, 일반화·개념화된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

이에 따라 예시문의 단락별 주제문을 찾아보자.

- 1 [㉠]우리는 지금,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예술, 여가 생활 등은 물론이고 사상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도 모두 상품화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식을 비롯한 생활 방식마저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리프킨(Jeremy Rifkin)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1단락
주요 내용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 사회는 상품화되었다. 이를 리프킨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접속이란 인터넷은 물론 전자 제품, 자동차, 주택 같은 다양한 실물 영역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는 포괄적 추세이다. 접속은 이들 상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상대 개념은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산업 시대는 소유의 시대였다. 기업은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 고 소비자는 상품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존재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여 고객이 평생도록 자신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고 서비스나 다른 영역의 접속에 관한 권리를 팔면서 고객의 시간을 장악해 나간다. [㉥]우리의 삶이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락
주요 내용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산업 시대의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다.

①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은 중복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둘째 문장만 남겨 둔다. 결국 둘째 문장이 단락의 주제문이 된다.

② 앞 문장의 예시이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③ 소주제문인 마지막 문장과 중복되면서 그에 포괄되는 내용이므로 소주제문으로 부적절하다.

④ 바로 앞에 나온 중심 내용인 접속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 대조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대조되는 내용은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소주제문이 될 수는 없다.

⑤ 예시이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⑥ 첫 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소주제문이다.

- 3 ^㉒이와 같은 접속의 시대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의 다 서비스화될 수 있다.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이 돈을 매개로 매매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㉓사실상의 모든 인간 활동이 돈으로 거래되는 세계에서는 감정의 연대, 믿음 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입회, 등록, 요금 등에 기반을 둔 계약 관계로 바뀐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이 순전한 상업적 관계로 얽혀 있다. 타인의 시간, 타인의 배려와 애정을 돈으로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㉔결국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3단락
주요 내용

접속의 시대로 바뀌면서 문화마저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 4 ^㉕리프킨은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상품화하는 현상이 사실은 우리 삶의 가치를 허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㉖역사적으로 문화는 늘 상업에 선행했다. 상업은 문화의 파생물이었다. ^㉗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문화가 상업화를 위한 재료 공급원으로 전락했다. 문화 자본주의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 온 문화적 다양성을 살살이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간 가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문화 영역마저 상업 영역에 완전히 흡수당하게 되면 사회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건강한 시민 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결국 인간의 문명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4단락
주요 내용

문화 영역이 상품화되면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된다. 이는 건강한 시민 사회와 인류 문명의 붕괴를 의미한다.

- 5 ^㉘리프킨은 지리적 공간에 뿌리를 둔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 나가는 것만이 인간의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㉙수천 년을 이어 온 인간 체험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㉚그러므로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시키는 일은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것이다.

5단락
주요 내용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7 소주제문인 마지막 문장과 중복되면서 포괄되는 내용이다.

8 접속의 시대에 발생하는 상품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이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9 첫 문장, 둘째 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일반화·개념화된 주제문 한 문장으로 통합하여 정리한다.

10 단락 중 후반부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다 포괄적인 문장을 소주제문으로 삼는다.

11 중심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대조 내용이기 때문에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12 첫 문장을 구체화한 내용이므로 소주제문이다.

13 중심 문장인 마지막 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이다.

14 4단락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과 중복된다.

15 첫 문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좀 더 뚜렷한 주장이 드러나므로 소주제문이다.

[3] 단락 간 관계로 글 구조 및 핵심 내용 파악하기

단락별로 소주제문을 정리했다면, 이제 각 소주제문을 토대로 단락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 단락이 주지 단락인지, 예시 단락인지, 상설 단락인지, 아니면 부연·첨가 단락인지 등을 파악하고, 단락 간 관계와 구조를 이해하여 핵심 내용을 추린 후 그것을 중심으로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 주어진 예시문의 단락별 주제문을 재배열하여 단락 간 관계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단락) 화제 제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대 사회는 상품화되었다. 이를 리프킨은 '접속'과 '문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2~3단락) 현대 사회의 특징인 상품화의 원인

2단락)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산업 시대의 상품 교환에 바탕을 둔 체제에서 경험 영역의 접속에 바탕을 둔 체제로 변하고 있다.

3단락) 접속의 시대로 바뀌면서 문화마저 상품화되고, 공리와 영리의 경계선은 점점 허물어진다.



4단락) 현대 사회 특징인 상품화의 문제점

문화 영역이 상품화되면 문화적 다양성이 소멸된다. 이는 건강한 시민 사회와 인류 문명의 붕괴를 의미한다.



5단락) 현대 사회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문화와 산업의 적절한 균형을 복원하는 일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예시문은 '현대 사회의 특징인 상품화를 초래한 원인을 밝힌 후 상품화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4] 정리 · 요약하기

[3] 단계까지 수행했다면 글 전체 내용을 충실히 파악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요약문을 작성해 보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독해 후 요약문을 작성해 보는 것은 가장 좋은 독해 연습이 된다. 물론 이는 논술에서 간혹 출제되는 요약 유형 문제 풀이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핵심 단락을 중심으로 예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예시 답안

정	보	통	신	의	급	속	한	발	달	이	문	화	의
상	품	화	를	가	속	시	키	고	있	다	,	이	것
유	'	를	대	체	한	'	접	속	'	현	상	으	로
제	변	화	에	기	인	한	다	,	접	속	의	시	대
귀	면	서	인	간	의	문	화	마	저	상	품	화	되
화	자	본	주	의	가	도	래	한	것	이	다	,	이
인	간	가	치	의	마	지	막	보	루	인	문	화	영
마	저	산	업	영	역	에	흡	수	당	하	게	되	면
화	다	양	성	은	소	멸	하	고	,	인	간	문	명
기	에	처	한	다	,	그	러	므	로	문	화	와	산
적	절	한	균	형	을	회	복	해	야	한	다	,	



요약할 때
반드시 실수

요약할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제시문의 내용을 오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못 요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

요약은 감상과 의견을 쓰는 것이 아니다. 즉, 요약할 때에는 절대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제시문 필자의 주장이 자신의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요약문에 투영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제시문의 요약이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지 못한 경우

제시문의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 어구를 두세 단어 이상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고어 투나 번역투 표현, 비유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 말로 옮겨 써야 한다. 제시문의 본래 의미를 왜곡할까 봐 제시문의 표현을 자기 말로 바꾸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는 내용의 왜곡만큼이나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150~200자로 요약하시오.

감정의 충실한 도구로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감정의 대상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그것과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이성이 대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감정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감정이 원래 바라던 바와 어긋날 수 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성은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은 그 실행 방안이 감정에 유익한지 확인한 후 감정에 적합한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은 감정에 충실히 봉사한다.

1 화제 파악하기

“감정”과 “이성”이라는 어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제시문의 화제는 ‘감정과 이성’이다.

감정보다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성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견해가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이 감정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어떤 대상이 고통이나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간의 감정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누리려 한다. 그런데 감정은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인과 관계를 맺는 모든 대상과 관련된다. 이성은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성은 행동의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성을 ‘감정의 노예’로 일컫기도 하였다. 이성은 감정에 복무하는 이외의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이기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않으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작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타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이성은 감정의 충실한 도구일 따름이다.

감정의 충실한 도구로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감정의 대상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그것과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이성이 대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감정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감정이 원래 바라던 바와 어긋날 수 있다.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성은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성은 그 실행 방안이 감정에 유익한지 확인한 후 감정에 적합한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성은 감정에 충실히 봉사한다.

2 단락별 소주제문 파악하기

- 1 ① 감정보다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성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견해가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②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이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이 감정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

1 단락
주요
내용

인간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이성은 감정의 도구일 뿐이다.

- 2 어떤 대상이 고통이나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간의 감정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누리려 한다. ③ 그런데 ④ 감정은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과 인과 관계를 맺는 모든 대상과 관련된다. ⑤ 이성은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⑥ 인간의 행동은 감정에서 비롯되며, 이성은 행동의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다. ⑦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⑧ 이성을 ‘감정의 노예’로 일컫기도 하였다. ⑨ 이성은 감정에 복무하는 이외의 다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⑩ 내 손가락의 작은 상처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이기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① 글의 핵심 논지와 대조되는 사회적 통념을 나타낸 문장이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② 첫 단락의 주제문이면서 글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문이다.

③과 유사한 내용은 뒤에서 반복되는데, 이후 반복되는 내용은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④ 둘째 단락의 소주제문으로 ⑤와 유사한 내용이 뒤에서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내용은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⑥ 이 단락의 논점을 보여 주는 부분이 아니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⑦ 중복 어구

⑧ 앞 내용의 예시이므로 단락의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않으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작은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타주의도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 ②「이성은 감정의 충실한 도구일 따름이다.」

2단락 주요 내용 이성은 감정과 관련된 모든 대상을 분석하여 도덕성과 무관하게 감정의 쾌락을 극대화시킬 행동을 결정한다.

- 3 ③「감정의 충실한 도구로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감정의 대상을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그것과 다른 대상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④만일 이성이 대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감정의 명령을 실행하고자 서둘러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감정이 원래 바라던 바와 어긋날 수 있다. ⑤「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성은 행동을 결정하기에 앞서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분석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⑥「이성은 그 실행 방안이 감정에 유익한지 확인한 후 감정에 적합한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⑦「이성은 감정에 충실히 봉사한다.」

3단락 주요 내용 이성의 기능 없이 감정은 감정 스스로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행할 수 없다.

② 중복 어구

⑤ 중복 어구

③ 셋째 단락의 소주제문이다.

⑤ 중복 어구

⑥ 중복 어구

3 단락 간 관계로 글 구조 및 핵심 내용 파악하기

1단락 주장

인간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이성은 감정의 도구일 뿐이다.



2단락 근거

이성은 감정과 관련된 모든 대상을 분석하여 도덕성과 무관하게 감정의 쾌락을 극대화시킬 행동을 결정한다.



3단락 근거 부연

이성의 기능 없이 감정은 감정 스스로가 지향하는 목적을 실행할 수 없다.

결론 2~3단락은 1단락의 핵심 내용인 '이성이 감정을 따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4 예시 답안

	인	간	은		감	정	에		따	라		행	동	하	며	,		이	성	은
감	정	의		도	구	일		뿐	이	다	,	인	간	의		행	동	은		
고	통	을		멀	리	하	고		쾌	락	을		즐	기	려		하	는		
감	정	에		따	라		결	정	되	며	,	이	성	은		감	정	의		
명	령	을		효	율	적	으	로		수	행	하	기		위	해		감	정	
의		대	상	들	을		비	교		분	석	하	여		행	동	의		구	
체	적	인		방	향	과		수	단	을		마	련	한	다	,		만	일	
이	성	의		기	능	이		증	지	된	다	면		감	정	은		그		
목	적	을		실	행	할		수		없	을		것	이	다	,				

100

예제 ②

☞ 다음 제시문을 읽고 100~150자로 요약하시오.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大人)이 되며, 누구는 소인(小人)이 되니 어찌하여 그럴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마음[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다시 물었다. 나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니 어찌하여 그럴까요? 맹자가 대답하였다. “눈과 귀는 보고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물(外物)과 접촉하면 쉽게 유혹된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면 깨달음을 얻어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과 눈과 귀는 모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 눈과 귀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화제 파악하기

“대인”과 “소인”이라는 어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 제시문의 화제는 “대인과 소인”이다. “마음”은 “대인”과, “눈과 귀의 욕망”은 “소인”과 각각 연결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大人)이 되며, 누구는 소인(小人)이 되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마음[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공도자가 다시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눈과 귀는 보고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물(外物)과 접촉하면 쉽게 유혹된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면 깨달음을 얻어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과 눈과 귀는 모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 눈과 귀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락별 소주제문 파악하기

- 1 ①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大人)이 되며, 누구는 소인(小人)이 되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맹자(孟子)가 대답하였다. “마음[心]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주요 내용
1단락

내면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감각적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된다.

- 2 ② 공도자가 다시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마음을 따르며, 누구는 눈과 귀의 욕망을 따르니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눈과 귀는 보고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물(外物)과 접촉하면 쉽게 유혹된다. 그러나 마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르면 깨달음을 얻어 미혹되지 않는다. 마음과 눈과 귀는 모두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 눈과 귀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2단락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추구는 주체적인 사고 결여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만, 내면은 주체적 사고가 가능하여 미혹되지 않는다.

① 공도자의 질문은 제시문의 핵심 논자인 맹자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도입으로 역할할 뿐이므로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② ①과 마찬가지로, 공도자의 질문은 도입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제문이 될 수 없다.

3 단락 간 관계로 글 구조 및 핵심 내용 파악하기

1단락 주장

내면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감각적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됨.



2단락 주장에 대한 근거

감각적 욕망 추구는 주체적 사고 결여로 주변 사물에 쉽게 유혹되지만, 내면은 주체적 사고가 가능하여 미혹되지 않기 때문임.

4 예시 답안

	공	도	자	와		맹	자	의		대	화	로		대	인	과		소	인
의		차	이	를		보	여		주	고		있	다	.	맹	자	는		감
각	적		욕	망	을		따	르	면		유	혹	에		쉽	게		흔	들
릴		수		있	기		때	문	에		대	인	이		되	기		위	해
서	는		의	적	인		욕	망		추	구	에	서		벗	어	나		마
음	,	즉		자	신	의		주	체	적		사	고	가		반	영	된	
내	면	을		따	르	는		사	람	이		되	어	야		함	을		강
조	하	고		있	다	.													

학생의 실제 Good vs. Bad 답안과
대학의 평가를 공개합니다!

이투스^이북

대입논술
필독서

단기완성

논술

38

대학 가자

초암 PlanA 논술팀

논술
핵심 요약

실제
학생 답안
완벽 분석

대학별
최신 기술
문제 수록

풍부한 예제와 답안의 대조를 통해
대입 논술의 모든 것 훈련

사고력과 논증력을 키우는 논술 필독서
제시문 특성별 읽기 전략 수록
논제에 따른 쓰기 전략 제시

수시/모의논술, 논술경시 대비를 위한 실제 답안 제시
20년 경력의 논술 강사들이 첨삭한 실제 답안 공개
학생이 실제 작성한 Good, Bad 답안으로 실전 대비

단기완성

논술

대학가자

논술의 기본인 읽기와 쓰기를 전략적 해법으로 접근한다!

논술의 첫걸음인 제시문 읽기부터 논제에 따라 쓰기까지 단계별 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학습 전략과 원리를 직접 예시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논술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Good 답안 vs. Bad 답안]을 통해 '합격 요소'를 배운다!

학생들이 작성한 실제 답안을 수록하고 Good 답안 vs. Bad 답안 각각에 대한 강평과 첨삭으로
학생들이 논술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격 기준에 합당한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힌다!

우수 대학별 수시 논술 기출문제를 예제로 채택하고 이 책에서 제시한 해법 전략대로 풀어냄으로써,
완벽한 실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정가 25,000원



9 791158 312084

ISBN 979-11-5831-208-4

Easy to Study

공부가 쉬워지는 곳.
선배들의 학습 노하우가 있는 곳
www.etoosbook.com

